

# 미얀마-중국, 경제회랑 본격 개발

김미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본부 동남아대양주팀 연구원

## 주요내용

- ▶ 2017년 12월 1일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회랑 건설을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.
- ▶ 군부 독재 시기 긴밀하던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2011년 준민간정부 출범 이후 약화되었으나 2016년 아웅산 수지 정부 출범 이후 교역,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임.
- ▶ 중국의 경제회랑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이 재개 또는 진전될 수 있으나 사업조건, 공공부채 증가, 안보 문제,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한 미얀마 내부의 우려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
## 1. 이슈 현황

▶ 2017년 12월 1일 미얀마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과 중국 시진핑 주석은 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회랑 건설을 비롯한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함.

- 특히 양국은 중국 윈난성 성도 쿤밍-미얀마 중부 만달레이-서부 여카잉주의 주도 짜옥푸 노선과 만달레이-경제수도 양곤 노선을 잇는 인(人)자 형태의 경제회랑 건설을 본격화하기로 함.
- 이 경제회랑에는 기존의 양국 천연가스관, 송유관과 고속도로, 철도가 포함되고 짜옥푸 심해항, 짜옥푸 경제특구 개발이 포함됨.

## 2. 원인과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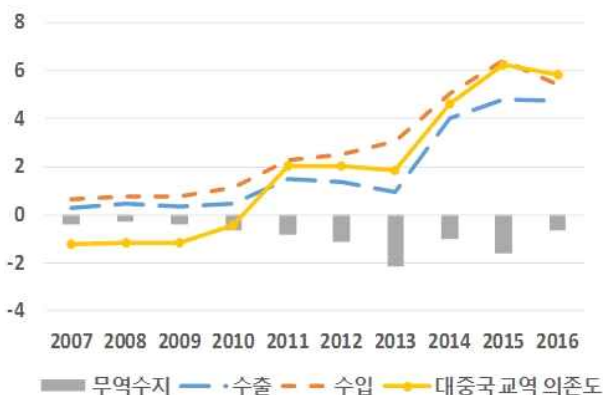
▶ 군부 독재 시기 긴밀하던 양국 경제협력 관계는 2011년 준민간정부 출범 이후 약화되었으나 2016년 아웅산 수치 정부 출범 이후 교역, 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임.

□ 군부 독재 시기 서방의 제재로 중국과 미얀마는 정치·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였으나 2011년 폐인세인 준민간정부 출범으로 서방의 제재가 완화·해제되면서 미얀마의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다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음.

- 2007년 10.4%이던 미얀마의 대중국 교역의존도는 이후 가파르게 높아지며 2016년 36.8%를 기록하였고 중국은 2014년 이후 최대수출국이자 최대수입국이 됨.
- 중국의 대미얀마 투자는 FY 2005/06~2010/11년 94억 달러로 총 투자의 33.2%를 차지하였으나 2011년 이후 금액(85억 달러)과 비중(30.6%)이 소폭 감소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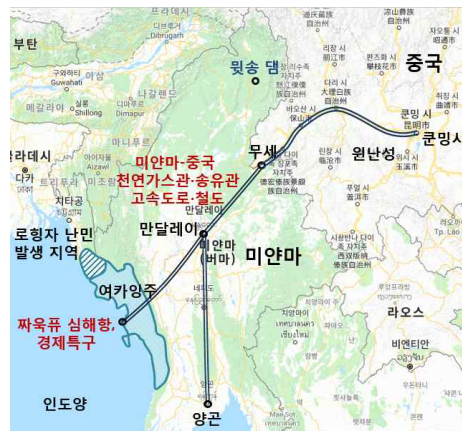
그림 1. 미얀마의 대중국 교역

(단위: 십억 달러, %)



자료: IMF DOTS(검색일: 2017. 12. 5).

그림 2. 미얀마-중국 주요 인프라 사업



자료: Nikkei Asian Review 참고 저자 작성

- 중국의 미얀마 건설 수주액은 2007년 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2년 22억 달러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폐인세인 정부 시기인 2014년 8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2016년 19억 달러로 다시 증가함.

□ 미얀마와 중국의 인프라 협력은 양국 관계의 부침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음.

- 2013년 7월 양국 가스관과 2017년 4월 송유관 가동이 시작되었고 중국은 이를 통해 말라카 해협 이외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됨.
- 2015년 12월 중국 국영기업 중신국제신택투자공사그룹(CITIC) 컨소시엄은 100억 달러 규모의皎漂-曼谷 (皎漂-曼谷) 경제특구 개발사로 선정됨.
- 중국은 일대일로로 일환으로 방글라데시-중국-인도-미얀마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얀마-중국 경제회랑은 4개국 경제회랑의 일부임.

- 2017년 11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은 기존의 쿤밍-만달레이-짜옥푸 노선에 만달레이-양곤 노선을 추가한 인(人)자 형태의 경제회랑 건설을 미얀마에 공식 제안한 바 있는데 이는 일본의 만달레이-양곤 철도 개선 사업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됨.
- 일본국제협력기구(JICA)가 주도하는 양곤-만달레이 철도개보수 사업은 22억 달러 규모로 2017년 시작되어 2025년 완공될 예정임.

### 3. 전망과 시사점

▶ 중국의 경제회랑을 포함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 추진이 재개 또는 진전될 수 있으나 사업조건, 공공부채 증가, 안보 문제, 높은 중국 의존도에 대한 미얀마 내부의 우려를 고려할 때 실질적인 추진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.

- 2015년 짜옥푸 심해항·경제특구 개발 사업은 개발사 선정 이후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한 신정부의 반대로 소유권 등 기본사항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착공이 지연되고 있음.
- 미얀마가 짜옥푸 사업에서 부담해야 할 재원 규모는 35억 달러로 이는 미얀마 GDP의 5%에 해당하는 액수임.
- 미얀마 내에는 짜옥푸 심해항이 중국의 인도양 군사전략에 따라 중국의 해군 기지로 사용될 가능성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도 존재함.
- 미얀마가 중국이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에 대한 국내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실리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치·외교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2009년 중국은 미얀마 동북부 뚝송에 36억 달러 규모의 수력발전댐 건설을 시작하였으나 2011년 주민 반대와 환경문제로 중단된 바 있음. **EMERiCs**

#### 참고문헌

- Financial Times, Nikkei Asian Review, Myanmar Times 및 언론보도자료 종합

#### 알립니다

- EMERiCs 이슈분석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(KIEP)에서 발간하고 있으며, 저작권 정책은 '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 제3유형'에 따릅니다. 해당 원고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무단 전재·변경·제3자 배포 등을 금합니다. 또한 본 원고를 인용하시거나 활용하실 경우 △출처 표기 △원본 변경 불가 등의 이용 규칙을 지켜셔야 합니다.
- 본 원고에 대한 글, 그림, 사진 등 저작권자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모든 자료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저자 본인에게 있으며, 해당 원고의 의견은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